

LG그룹, 실리콘밸리 기술센터 개설

전자·화학 북미 R&D 허브로 육성 ...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도 적극화

LG그룹이 미국 실리콘밸리에 기술센터를 설립하고 글로벌 연구개발(R&D) 체제 구축을 가속하고 있다.

LG는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 전자, 화학 등 주력사업의 북미지역 R&D 허브 역할을 하게 될 <LG 북미 기술센터>를 개설한다고 4월15일 발표했다.

북미기술센터는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이노텍 등 계열사에서 파견된 20여명의 연구원들이 휴대전화,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에 관한 북미지역 기술동향을 조사하고 연구하게 된다.

또 실리콘밸리에 있는 글로벌 성장기업과 연구기관들의 최신 기술동향을 조사하고 접목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LG는 계열사의 R&D 협력을 통해 북미지역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편광필름패턴(FPR) 3D TV와 LTE 스마트폰 등과 같은 IT제품을 계속 발굴할 계획이다.

LG화학, LG디스플레이, LG전자 3사가 공동 개발한 FPR 방식 3D TV는 미국 컨슈머리포트에서 1위로 평가받아 시장점유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LG는 북미 기술센터를 설립함에 따라 국내 LG기술협의회 산하에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CIS 등 주요 사업지역 4곳에 그룹 차원의 R&D 거점을 확보하게 됐다.

LG의 구본무 회장은 3월 열린 연구개발성과 보고회에서 “전자계열, 화학계열의 R&D 시너지를 더욱 활성화해 시장을 선도할 미래 신제품 개발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4/16>